

관광객이 던져준 먹이 때문에



초고도비만에 걸려 치료를 받던 태국 원숭이가 보호소를 탈출한 후 자취를 감춰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태국 방콕 방쿤 티안의 한 시장 근처에서 서식하던 긴꼬리원숭이 '엥클 패티' 는 관광객이 던진 먹이를 주워 먹다 엄청난 뚱보가 됐다. 배가 땅에 질질 끌릴 정도로 살이 찐 원숭이를 본 관광객들은 신기해하며 계속 먹이를 던져주었고 '엥클 패티' 의 비만도는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27kg까지 몸무게가 불어났다. 보통 원숭이의 평균 몸무게는 8~10kg 정도다.

보다 못한 방콕 야생동물관리국은 지역 동물보호단체들과 연계해 지난 2017년 이 원숭이를 보호소로 옮겨 치료에 나섰다. 보호소 측은 고단백 저지방 식단을 제공하며 원숭이의 체중 감량을 도왔고 얼마 후 '엥클 패티' 의 체중은 약 3kg가량 줄어들었다. 보호소 측은 이대로라면 엥클 패티가 조만간 퇴원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 견해를 내놨다.

그러나 지난 2월 엥클 패티는 보호소를 탈출했다. 보호 당국은 달아난 엥클 패티를 찾기 위해 CCTV를 뒤지고 인근 숲을 수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흔적을 찾지 못했다.

엥클 패티 실종 후 5개월이 다 되도록 야생동물보호 당국은 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생존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위 러브 몽키 클럽' 측은 "원숭이는 자신이 쇠약해졌다는 것을 느끼면 무리에서 떨어져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다른 원숭이나 동물이 자신의 죽음을 보지 못하도록 하려는 습성" 이라면서 엥클 패티 역시 어디선가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내놨다.

방콕 야생동물보호국은 "관광객들은 엥클 패티에게 밀크셰이크와 젤리, 쿠키 등 온갖 가공식품을 던져주었다." 면서 원숭이의 비만에는 관광객들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함부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야생 동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뱃사공 선생'이 전하는 감동

깊은 산골에 위치한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학생들은 깎아지른 돌산을 넘고, 깊은 호수를 건너야 한다. 이 학교의 유일한 교사인 스란송(55) 씨는 매일 학생들을 나룻배에 태워 등교 시킨다. 그 세월이 어느덧 34년, 사람들은 그를 '뱃사공 선생' 이라고 부른다.



1985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꿈꾸던 스 씨, 하지만 그의 스승이 중병으로 쓰러지면서 그가 대신 아이들을 맡게 되었다. 스승의 간곡한 부탁으로 잠시 교편을 잡기로 한 것이었지만, 결국 이 산골 학교의 지킴이로 34년째 머물게 됐다.

당시 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네는 가파른 돌산과 깊은 호수가 가로막고 있어 아이들은 '목숨 건 등교' 를 해야 했다. 그 때문에 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이 염려돼 등교를 거부했다. 스 씨는 집집마다 찾아가 "아이들의 등교 안전을 책임질 테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달라." 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룻배 한 척을 만들어 마을 아이들을 직접 태워 등교 시키며 가르쳤다.

작은 나룻배에는 최대 7명의 아이들이 탈 수 있었다. 전교 12명 아이들을 위해 하루에 적어도 왕복 4번 나룻배를 저어야 했다.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 6시부터 아이들을 나룻배에 태웠고, 점심시간이면 아

이들의 식사를 직접 요리했다.

더러 이곳에 파견된 교사들은 모두 1년도 못 버티고 떠났다. 결국 스 씨만이 남아 교사, 부모, 요리사, 뱃사공 등 다양한 역할을 해냈다. 장장 34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인고의 세월이었다. 그동안 나룻배 8척을 소모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뱃사공 선생' 의 나룻배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쳤다.

다행히 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건네졌다. 이제는 튼튼하고 안전한 전동 배가 생겼고, 아이들은 요리사가 만든 영양 오찬을 먹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이들의 등교를 책임지며 가르침에 여념이 없다.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더 큰 세상에서 살아갈 것" 이 그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낳긴 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야!

뉴욕에서 살고 있는 동양인 부부가 병원의 배아 이식 실수로 다른 부부의 아이를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부부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난임 치료시설에서 체외수정을 통해 쌍둥이 남자아이를 출산한 것이 지난 3월이었다. 그러나 결혼 6년 만에 얻은 아이들은 부모와 다른 점이 많았다. 외모부터 동양인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당황한 부모들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부부와 두 아이 사이에 유전자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다른 부부의 배아가 이 부부에게 잘못 이식된 사실이 밝혀졌다.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이 난임 치료시설을 이용

했다. 병원은 이 부부에게서 각각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총 8개의 배아를 생성했다.

이 부부는 한 차례 이식 실패를 거쳐 지난해 8월 쌍둥이 임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상한 조짐은 임신 당시부터 나타났다. 8개의 배아 중 1개만 남자아이였지만 초음파 검사 결과 뱃속 태아가 모두 아들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출산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는 이달 초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병원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영구적 심리 피해를 보았다." 며 시술에 지출한 1만 달러 이상의 비용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자신들이 생성한 배아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며 "병원이 배아의 행방을 감추고 있다. 아예 해동되지 않았거나 폐기 및 분실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 의혹을 제기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요일 오전10시30분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